

# 화엄·유식의 발전... 東亞 불교 중심으로 '우뚝'



김용래 교수의 한국불교 도표 36選

## 8. 의상 화엄과 해동 유식

삼국통일 후 신라는 고구려, 백제 불교의 유산을 흡수하고 중국 당과의 교류를 더욱 확대하면서 교학에 대한 이해가 한층 심화되었고 원효를 비롯하여 기라성 같은 불교사상가가 다수 배출되었다. 교학 중에서는 특히 화엄학과 유식학이 신라 불교 교학의 중심이었다. 화엄학은 의상과 그의 문도들에 의해 체계적인 이해와 실천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의상은 중국 화엄종의 2조 지엄에게 수학하였고, 지엄의 또 다른 제자로서 중국 화엄의 이론적 토대를 닦은 법장과 사형사제 관계였으며 귀국 후에도 사상적인 교류를 지속하였다. 신라의 화엄학은 의상 문도들의 활발한 연구와 활동에 의해 불교계의 주류사상이 되었고 후대에는 종파로 발전하였다. 신라의 유식학은 기존에 진제가 번역한 구유식 경론에 기초하면서도 7세기 중반 당의 현장에 의해 새로 도입된 신유식설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사상적 모색과 함께 많은 학문적 성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화엄학과 중국 화엄종의 계보에 대해 살펴본다. 화엄학은 부처의 깨달음의 세계를 묘사한 《화엄경》에 입각하여 존재의 상호연관성과 부처와 중생의 동일성을 해명하는 교학이다. 중국의 화엄학은 앞서 남북조시대의 지론학과 일부에서 《화엄경》의 법계를 중시하고 신앙을 강조하면서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후 두순을 조조로 하는 화엄종이 성립되었고 2조 지엄, 3조 법장을 거치면서 이론적 체계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4조 징관에 의해 교학이 집대성되고 5조 종밀은 선교 융합의 길을 제시하여 포용적 방향으로 나갔다. 한편 신라의 의상은 당에 유학을 가서 지엄의 문하에서 수학한 후 돌아와 해동 화엄을 개창함으로써 동아시아 화엄의 중심인물로 부상하였고 그의 명성은 중국과 일본에도 널리 알려졌다.

중국 화엄종의 1조 두순은 법계관문을 열었고 2조 지엄은 법계의 연기와 무진원율을 강조하였으며 3조 법장은 이들을 계승해 화엄교학의 체계를 세웠다. 특히 법장은 『오교장』에서 소승교, 대승교, 대승종교, 돈교, 원교의 5교판을 제시하였는데 화엄은 원교에 속하며 가장 뛰어난 일승사상으로 비정되었다. 법장은 당시 성행한 신유식과 기존 여래장 불성사상 사이의 긴장관계를 의식하여 유식을 대승교로, 여래장 계통 경론을 한 단계 높은 대승종교에 위치지어 양자의 우열을 판별하였고 누구나 성불이 가능하다는 일승의 관점을 분명히 하였다. 4조 징관은 화엄 이해의 지침서인 《화엄경소》와 그 해설서인 《연의초》를 남겼고 교와 관행의 겸수를 주장하였다. 이어 5조 종밀은 진심, 진지, 영지를 매개로 하여 화엄과 《원각경》 등 교와 선의 일치론을 주장하면서 양자의 통섭을 추구하였다.

해동 화엄의 문을 연 의상(625~702)은 진골 귀족 출신으로 661년부터 671년까지 약 10년간 당에 유

학하여 지엄에게 수학하였고 화엄의 요체를 간략히 정리한 '화엄일승법계도'를 일종의 졸업논문으로 제출하여 지엄의 인정을 받았다. 법장이 중국 화엄학의 이론을 체계화하고 화엄의 우월성을 천양했다면 의상은 화엄의 실천수행 방안을 제시하고 실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의상은 귀국 후 신라의 수도 경주가 아닌 지방에서 활동하면서 부석사를 창건하고 머물렀다. 또한 국왕의 토지 기부 제의를 거절하고 원래 불교의 가르침대로 승단의 무소유를 실천하였으며 하층민도 제자로 받아들이는 등 무차별의 평등을 추구하였다. 한편 그동안 중국의 법장 찬술로 알려져 있던 《엄경문답》이 의상의 강의록을 바탕으로 신라에서 만들어졌다는 설이 제기되어 최근 통용되고 있다.

의상의 대표작 '법계도'는 7연 30구, 210자의 상하좌우로 회전하는 형태로서 법의 세계를 형상화한 것이다. 그 내용은 모든 존재가 본질적으로 원융하며 부분과 전체,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다는 '일즉 다즉일'로 요약된다. 이는 차별적 현상세계가 실제로는 서로 의지하는 가운데 각기 드러난 것이어서 실상은 모두 차별이 없는 중도로 존재함을 간파한 것이다. 의상은 화엄교학에서 존재의 연기와 원융을 밝힌 심현문, 상즉상일 등의 개념을 활용하여 화엄의 세계를 법성을 드러낸 '법계도'로 나타나 보여주려 했던 것이다.

### 의상 스님 신라 화엄학 기틀

#### 회향·실천 강조... 교학 발전

#### 문도들에 의해 심화·발전돼

통일기를 살았던 의상 또한 원효와 마찬가지로 실천과 대중교화를 중시하여 아미타신앙과 관음신앙을 장려하였다. 의상이 창건한 부석사에는 화엄을 대표하는 비로자나불이 아니라 중생 구제의 일승불인 아미타불이 주존불로 모셔져 있다. 또 의상이 동해의 낙산에서 관음보살의 진신을 천진하였다고 하는데, 관음보살은 《화엄경》 입법계품에서는 보타락가산에 상주하며 구도자를 인도하는 존재로 나온다. 의상이 쓴 글로 전하는 '백화도량방원문' 또한 아미타신앙과 관음신앙을 결합한 내용으로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의상의 문도들은 이후 의상계로 지칭되는 단일한 색채의 학파를 형성하였고 지엄부터 법장으로 이어지는 화엄교학 및 의상의 사상과 실천 정신을 계승하여 신라 불교교단의 주류가 되었다.

한편 제자인 지통과 도신아 스승의 강의내용을 집록해 쓴 《추월문답》과 《도신장》의 단편적인 내용이 《법계도기중수록》 등에 인용되어 전하는데, 의상의 독자적 화엄사상으로는 자리와 이타 양면의 실천을 추구하는 당과불설과 오적신 사상을 들 수 있다. 이는 타과(他果)가 아닌 자기의 당과(當果)를 얻는 자리적 수행을 통해 5척의 몸이 바로 부처임을 깨닫고 몸 자체에서 부처의 세계를 드러내며, 다시 그로 인해 평등법을 얻어 모든 중생이 부처임을 깨닫고 부처에게 하듯 일체에 경배하는 이타적 실천행으로 이어지



의상 대사의 진영. 당나라에서 유학한 의상 대사는 신라 화엄학의 기틀을 닦았다.

는 구조이다. 의상은 신라에서 널리 행해진 관음신앙과 아미타신앙에 오적신 사상을 적용하여 화엄을 현실의 장에서 구현하려 했던 것이다.

유식학은 인도 대승불교의 유식사상에 기초한 교학으로 《해심밀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며 중국에서는 7세기 후반 법상종으로 성립되었다. 현장은 17년간 인도 여정 끝에 올라 불교연구의 중심지였던 날란다 사원에서 유식학을 비롯한 최신 학설을 배운 후 많은 경론을 수집해 돌아왔다. 현장의 여행기 《대당서역기》는 당시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불교와 사회, 문화 등 다채로운 실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 기록이다. 한편 원승이 손오공을 주인공으로 하는 《서유기》는 현장의 여행담을 모티브로 하여 만들어진 소설이다. 현장은 645년에 당에 돌아온 후 황실의 지원을 받아서 가져 온 총 75부 1,347권의 경론을 제자들과 함께 한역하고 연구하였다. 이 중 인도 유식학파의 세친이 쓴 《유식삼십송》에

대한 호법과 계현의 해석을 중심으로 성립된 《성유식론》은 흔히 말하는 신유식의 정립에 기초가 되었을 뿐 아니라 당시 중국 불교사상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즉 알라야식은 오직 망식일 뿐이며 여래장식(불성)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당시 인도 유식학의 주류 담론이 중국에 소개되어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이다. 이러한 신유식의 입장은 진제의 한역 경론에 토대를 둔 섭론학 등 기존의 구유식에서 진식과 망식의 결합으로 알라야식을 이해한 것과 어긋나는 주장이었다. 특히 신유식에서는 성불 가능성이 아예 없는 무중생의 중생을 상정한 오성각별설을 제기했는데 이는 동아시아 불교의 중요한 전통으로 자리 잡은 불성론과 모든 중생의 성불 가능성을 부정하는 파격적인 문제제기였다.

신라 유식을 대표하는 원측은 왕족 출신으로 10대에 당에 유학하여 법어와 서역의 언어를 습득하였고 현장의 제자가 되어 새로 들어온 신유식 문헌의 한역

에 종사하였다. 그는 스승이 도입한 신유식을 적극 수용하여 식의 이해, 오성각별설 등의 문제에서 기존의 구유식을 비판적으로 비교, 검토하면서 유식학의 이론적 체계화를 도모하였다. 658년 당 황실의 지원으로 개창된 서명사에 주석하면서 서명학파를 열었고 《성유식론소》 등 100여 권에 이르는 방대한 저술을 지었다. 원측 계통은 현장의 수제자이자 중국 법상종을 개창한 규기 계통의 자은학파와 라이벌 관계였는데, 법상종 내의 주류세력이 된 규기 계열의 배척을 받아 원측과 그 문도들의 사상과 활동은 실제 위상보다 폄하되었다.

하지만 원측의 유식교학은 현장 신유식의 정수를 계승하였을 뿐 아니라 사상적 포용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제자인 도중이 692년에 귀국하여 신라에 원측의 교학이해가 전해지는 등 동아시아 세계에 미친 그의 사상적 영향력은 적지 않았다. 특히 원측이 쓴 《해심밀경소》가 8세기에 둔황지역에 전승되었고 이후 티베트어로 번역되어 티베트대장경에 수록되기도 하였다.

신라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유식학자로는 도륜과 태현, 그리고 백제 출신으로 알려진 의영과 경홍을 들 수 있다. 의영은 성불 불가능한 존재를 상정한 신유식의 오성각별설을 비판하고 구유식의 입장에서 모든 중생의 성불가능성을 의미하는 '일체개성설'을 주장하였다. 국로로 존송된 경홍도 유식관계 저술을 다수 남겼지만 현재는 《무량수경》과 《미륵경》에 대한 정도관련 주석서만 전한다.

이에 비해 도륜(또는 둔륜)의 《유가론기》 24권은 현존하는데, 여기에는 당과 신라 유식 승려들의 다양한 견해들이 소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태현은 원효, 경홍과 함께 신라의 3대 저술가로 알려져 있으며 고려시대에는 해동 법상종의 조사로 추송되었다. 그의 《성유식론학기》에는 원측과 규기의 견해가 대등하게 인용되어 있다. 이들 신라 유식학자들의 사상은 남겨진 저서는 물론 일본 등에 전하는 사본이나 주석서의 인용문을 통해 그 단편을 엿볼 수 있다.

화엄학은 한국불교의 사상을 대표하는 교학체계로서 통일신라시대에 유식학과 함께 교학불교의 전성기를 열었다. 의상은 중국 화엄에는 없는 이이상즉(理相即)의 이론을 제시하고 회향과 원력을 강조하여 교학과 실천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의상에서 비롯된 실천적 측면의 강조는 해동 화엄의 특징으로 이어졌고 그의 존재로 인해 한국은 '화엄의 나라'가 될 수 있었다.

한편 동아시아의 유식학은 당과 신라의 유식학자들에 의해 만개하였다. 이들 중에는 중국에서 활동하거나 신유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이도 있었고 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이도 있었다. 또한 보다 융합적이고 일승적인 관점으로 제기되는 등 신라의 유식학은 다양한 사상적 입장이 혼재된 채 발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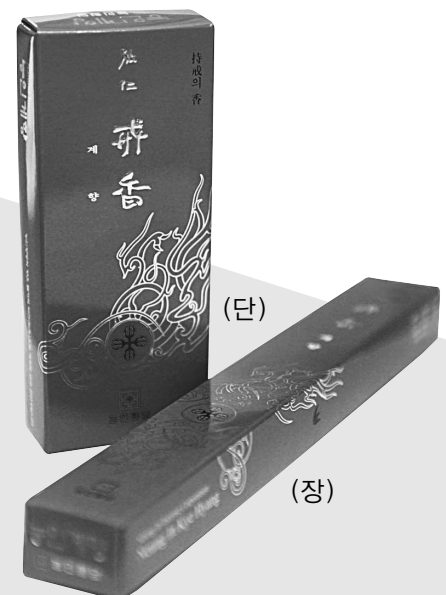
특히 신라 유식학을 대표하는 태현, 도륜 등은 성상용회를 강조하였는데 이는 유식학의 기본 관점 위에 법성종 등의 이질적 계통의 이론까지 포함한 것이었다. 통일신라시대에 화엄학과 유식학 등 교학불교가 만개한 사실에서 한국이 동아시아 세계의 '중심'에서 주변으로 전이되는 과정상의 단순한 전달자, 수용자만은 아니었음을 엿볼 수 있다.

## 능인 로즈마리 능인 라벤더

로즈마리는 향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시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능인 계향

능인계향은 진실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금강산 유점사에서 전해진 오분향 법제 그대로 기능성 약용향료를 사용하여 재현한 향입니다. Himalaya 야를 넘어 구해 온 다섯가지의 향목과 꽃으로 법제된 능인계향은 그 절대적인 약성으로 기혈을 편하게 풀어주어 새벽예불에도 밤새 안정된 기운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 각 30,000원 (장, 단)  
· 규격 : 장 (24.5cm) 약 1시간 10분 / 단 (14cm)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시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정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풀어내는 조성, 대덕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 우수성, 대덕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울면 고당리 473-2

##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